

SK텔레콤, 휴대폰으로 신용카드결제서비스 실시

신용카드결제없이 휴대폰만으로 카드조회나 대금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대표 조정남)은 KIS정보통신(대표 손정현), KOVAN(대표 김상준) 등과 함께 WAP 서비스를 이용한 「이동전화신용카드조회서비스」를 최근 제공했다.

이 서비스는 WAP방식 무선인터넷폰에 고객의 신용카드번호, 금액, 할부기간 등을 입력해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카드결제없이 이동전화만으로 신용카드조회가 가능하다.

기존 무선 신용카드결제 서비스는 이동전화 단말기 외에 별도로 카드결제기나 ARS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 방식은 카드를 카드조회기에 얹히는 대신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고객의 신용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ARS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용요금이나 승인을 기다리는 시간이 절약되고 부대장비가 필요하지 않다. 서비스요금은 부과하지 않으며 무선인터넷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통신, 「코넷 월드」서비스 실시

한국통신(대표 이계철)은 지난 5월 1일부터 자사 인터넷을 통해 멀티미디어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코넷월드」 서비스를 실시했다. 코넷월드는 개별 정보제공업체가 구축한 증권, 게임, 법률, 어학 등 각종 유료정보를 모아놓은 일종의 콘텐츠 백화점. 이 서비스는 일반전화, ISDN, ADSL, LAN 등 다양

한 방법으로 접속이 가능하다.

눈여겨 볼 만한 점은 정보이용료 회수를 한국통신이 대행한다는 점이다. 정보이용료는 회원가입시 입력한 전화번호로 통합돼 한국통신이 회수하기 때문이다. 정보제공업체는 한국통신 과금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과금장치 구축비용과 정보이용료 회수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새롬기술, 유료 VoIP서비스 실시

새롬기술(대표 오상수)이 자사가 보유한 다이얼패드기술과 프리즘커뮤니케이션즈(대표 김동일)의 국제전화망을 이용해 오는 6월부터 기업용 유료 인터넷전화서비스에 나선다. 가입자는 매월 기본료만 내면 시내외 무료통화가 가능하고 실비로 이동전화 및 국제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전화의 경우 기존 다이얼패드서비스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지며, 국제전화서비스는 국내 송신자로부터 국내 게이트웨이까지는 인터넷공중망을 이용하고 해외 착신점까지는 프리즘커뮤니케이션즈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인터넷무료전화 다이얼패드로 이미 국내외 800만 회원을 확보한 새롬은 다이얼패드 기술을 응용, 유료인터넷전화서비스 이외에도 계속해서 수익모델을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데이콤, 한국BtoB센터 구축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위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가 구축된다.

데이콤은 최근 한국인터넷센터에서 LG텔레콤, 한국오라클, 한국IBM, e-Net, 넷시큐어, 한국전자인증, 디지털 등 8개 업체와 업무 제휴를 체결, 기업간 전자상거래 도입을 지원하는 「한국BtoB센터(KBBC)」를 구축키로 했다.

한국BtoB센터는 기업에 네트워크, 하드웨어는 물론 솔루션, 금융, 물류, 보안, 컨설팅 등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센터가 구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센터 구축으로 기업은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아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데이콤과 제휴업체는 한국 BtoB센터 내에 이달 말까지 제휴사 임원급과 팀장급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데이콤은 한국BtoB센터 구축과 관련해 네트워크, EC호스팅, 금융포털, 기술지원 등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확충에 따른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LG텔레콤은 무선연계 솔루션을 제공해 자사 이동통신서비스망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한국IBM은 하드웨어 관련 시스템과 컨설팅을, 한국오라클, e-Net, 디지털 등은 플랫폼과 EDI관련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넷시큐어, 한국전자인증은 보안인증 서비스를, CJ GLS는 택배, 화물 운송 등 물류유통 부문을 책임지게 된다.

데이콤은 지난 2월 구축된 한국인터넷비즈니스센터와 한국BtoB센터를 연계한 국내 최대 EC종합센터를 설립, 운영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데이콤, 초고속인터넷 무료가입이벤트

데이콤(대표 정규석)은 5월 1일부터 한달간 자사 초고속인터넷서비스(<http://www.borhome.net>)에 가입하는 신규고객에게 설치비 4만원을 면제해 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데이콤은 이외에도 행사기간에 가입하는 고객에 한해 초고속인터넷 한달 무료이용권과 천리안 3개월 무료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로통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50만 돌파

초고속 인터넷 시장을 둘러싼 기간통신사업자들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을 통해 이 시장을 창출한 하나로통신이 가입자 50만을 돌파했다.

신윤식 하나로통신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4월 서울, 부산, 인천, 울산 등 4대 도시에서 초고속 인터넷 기반의 멀티미디어 시내전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만에 실개통 기준 50만 회선 가입자를 넘어서게 됐다』고 밝혔다.

신 사장은 『현재 가설 대기중인 예약고객을 포함할 경우 모두 81만8000회선에 달하는 가입자를 확보했다』며 『이 같은 추세로 미뤄 올해 목표인 153만 회선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로통신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50만 돌파는 이 회사가 처음으로 출시한 ADSL 선봉에 힘입은 것으로 한국통신, 데이콤, 두루넷, 드림라인 등 기간통신 사업자들과의 치열한 각축 끝에 선두자리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시장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 사장 역시 『올 목표치인 153만 회선 가운데 약 120만 회선을 「나는 ADSL」 「케이블TV 초고속 인터넷」 「광대역 무선가입자망(WLL)」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올해 약 300만 회선으로 추정되는 전체 내수시장의 40% 이상을 점유,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의 독주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사장은 또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의 개통 체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 ADSL 관련 장비의 공급업체인 알카텔과 루슨트로부터 23만 회선 규모의 장비를 추가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 연말까지 약 90만 회선의 장비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일 평균 개통처리 회선 수도 현재의 4000회선에서 7000~8000회선 수준까지 대폭 끌어올리고 고객 서비스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나로통신은 서비스 지역 확충에도 적극 나서 지난달 말 전국 50개 도시에서 상반기까지 62개로 늘리고 전국 79개 시급 지역으로 단계적 확산을 추

진, 전국 일원의 1500만 세대의 88%인 1300만 세대
대를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이다.

하나로통신은 이를 위해 자체 구축중인 ADSL 및
초고속통신망(HFC) 외에도 BWLL 보급을 서둘러 6
월부터는 서울 전역을, 7월부터는 부산을 포함한
수원, 안산, 광명 등 수도권 7개 도시의 5층 이하
소규모 빌딩 및 공단 내 중소기업, 학교 등을 대
상으로 사용 서비스에 돌입키로 했다.

두루넷, 24시간 음악전문채널 운영

두루넷(대표 김종길)이 호주 인터넷라디오방송국
인 디지털원(대표 CMMurphy)과 최근 제휴를 맺고,
해외 팝음악방송서비스에 나선다.

이번 제휴에 따라 올 상반기 중으로 두루넷 홈페
이지(<http://home.thrunet.com>)에 디지털원의 라
디오방송이 24시간 서비스될 예정이다. 서비스 내
용은 팝, 록, 댄스, 클래식 등 장르별로 6가지 해외
음악채널과 한국어로 진행되는 채널 1개로 이뤄져
있다. 두루넷은 음악방송과 전자상거래를 연동해,
청취중에 마음에 드는 음악의 CD 구입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이더넷 스위치 개발

삼성전자(대표 윤종용 <http://www.sec.co.kr>)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교육정보
화 학내망 사업 공약을 본격화한다.

이 회사는 최근 중소형 이더넷스위치(모델명 스

마티더SS7100) 개발을 완료, 지난달 25일부터
춘천, 원주, 강릉 등 전국 8개 지역을 대상으로 대
대적인 제품 로드쇼를 개최하고 학내망 시장선점에
나섰다. 이 회사가 새로 선보이는 주력제품 스마트
이더SS7100은 고속서버와 SMB(Small & Medium
size Business)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해주는 패스트
이더넷 스위치다.

이 제품은 10Mbps에서 100Mbps의 대역폭을 공
유하는 유연성과 다양한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을 제
공한다. 또 4개까지 연결해 최대 96포트까지 사용
할 수 있는 확장성을 바탕으로 VOD(Video On
Demand), 영상의 등 멀티미디어환경 구축을 지
원한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 출시를 계기로 지난해보다
80%이상 성장한 5500여 대상의 학내망 시장에서
2000여개 학교에 시스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이번 로드쇼 기간동안 각 지역의 교육
청 및 초중고 정보구축 관계자 1000여명에게 학내
망 관련 솔루션 설명회도 갖는다.

삼성전자, 북안과 SW 공동개발 계약

삼성전자의 대북 경제협력이 가시화 되고 있다.

삼성전자(대표 윤종용)는 지난달 27일 중국 베이
징에서 북한측과 소프트웨어(SW) 공동개발 프로젝
트 및 컬러TV, 카세트라디오, 유선전화기 등 전자
제품 임가공사업 등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내
용의 「세부 남북 경제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
근 밝혔다.

이번 남북 경제협력 계약은 삼성전자가 조선 아
시아, 태평양평화위원회 주관 아래 북한측 조선컴
퓨터센터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 개선무역총
회사 등 경제협력 실무기관들과 직접 체결했다. 이
에 따라 삼성은 내년초 50만~60만달러를 투자, 기
존의 평양공장 설비를 개선한 후 컬러TV, 카세트라
디오, 유선전화기 3개 품목을 매년 30만~40만대
정도 생산, 약 1000만달러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
다.

삼성은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구축될 경우 생산량

을 확대하고 품목도 늘려 나갈 방침이다.

삼성은 또 SW 협력사업으로 남북한 통합 워드프로세서 공동개발을 비롯, 중국어 문자인식, 게임 SW, 문서요약 SW, 그래픽 라이브러리 등 5개 SW를 선정,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1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삼성 관계자는 『SW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SW 분야의 남북한 경험으로 처음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의미가 크다』며 『정부 승인을 받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이들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이와 함께 이달 대표단을 북한에 다시 파견해 영문브랜드 「ATAE-SAMSUNG」을 붙인 대형 TV와 프로젝션TV를 평양내 공공장소에 부착하는 문제를 결정짓는다.

이번에 삼성전자와 경제협력 계약을 체결한 조선 컴퓨터센터는 지난 90년 10월 국가적인 컴퓨터, SW 산업강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800여명의 우수인력이 일하고 있다.

한편 이번 경제협력 계약은 지난 92년 2월 남북 당국이 체결한 「남북 교류와 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에 준해서 이루어진 최초의 남북 당사자간 직접 계약으로 이를 계기로 남북 산업체의 직접협력이 활기를 띠 전망이다.

LG정보, 광대역 CDMA WLL 단말기, 기지국용 모뎀 개발

LG정보통신(대표 서평원)은 광대역 CDMA 무선 가입자망(WLL) 핵심부품인 단말기 및 기지국용 모뎀 ASIC 2종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CDMA WLL 시스템 단말기를 개발한데 이어 WLL 단말기의 핵심부품인 모뎀을 개발함으로써 WLL 관련장비 일체에 대한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광대역 CDMA 방식은 국내 WLL 표준기술로 국내 디지털 이동전화에 쓰이고 있는 1.25MHz 협대역 CDMA 방식보다 채널 대역폭이 8배 넓은 10MHz를 사용함으로써 유선전화 수준의 전화서비스 및 고속의 무선 데이터서비스 구현이 가능한 미래형 기술이다.



이번에 LG정보통신이 개발한 광대역 CDMA 무선가입자망 모뎀은 무선 송수신 구간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자동검출, 정정하는 비터비(Viterbi) 디코더를 채택해 오류를 효과적으로 줄였으며 저전력 설계를 통해 소모전력을 최소화했다. 또 장애물에 의한 전파반사나 주행중인 차량에서 나타나는 페이딩(Fading) 현상을 줄이고 균일한 통화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타임 다이버시티 기능을 내장했다.

이 회사는 이 제품을 하나로통신에 공급하기로 하는 등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할 계획이다.

LG텔레콤, 기업은행과 무선금융서비스

LG텔레콤은 5월 초부터 전국 기업은행지점과 연계, PCS폰을 통한 무선금융서비스를 실시한다.

LG텔레콤(대표 남용)과 기업은행 (은행장 이경재), LG정보통신(대표 서평원)은 27일 기업은행본점에서 「모바일뱅킹에 관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이같이 밝혔다. 서비스내용은 통장잔액, 입출금내역, 신용카드청구내역 조회나 무통장입출금, 자동이체 등 일반 유선전화뱅킹업무와 유사하며 이동전화요금납부도 가능하다.

무선인터넷웹브라우저를 거치지 않고 LG텔레콤 교환국에서 기업은행 전산망으로 직접 연결해 서비스를 실시하기 때문에 기존 모바일뱅킹보다 이용시간이 단축된다.

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대형와이드그래픽 LCD가 내장된 전용폰이 필요하다. 별도 정보이용료는 없으며 건당 14원의 무선데이터요금이 적용된다.

LG텔레콤, “행운의 코인” 사이버 이벤트

LG텔레콤(대표 남용)은 지난 3일부터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www.lg019.co.kr)와 PC통신을 통해 신문기사를 잘 보고 문제를 맞추면 전자화폐(코인)를 지급, 게임에 참가하여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행운의 밀레니엄 코인을 잡아라」 행사를 실시한다.

이 행사는 이미 신문에 기사화된 이동통신 관련 문제를 맞추면 게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코인을 지급하고 이것으로 다시 전자게임에 참여하면 곳곳에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경품은 LG IBM 노트북을 비롯해 캠코더, 플레이 스테이션(Play station), MP3 플레이어, DDR, 문화상품권 등이며 대상은 550여명이다.

현대전자, 폰컴과 WAP 마이크로 브라우저 라이선스 계약

현대전자(대표 김영환)는 이동전화용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체인 폰컴(Phone.com)과 CDMA 휴대폰에 사용할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호환 마이크로 브라우저인 「유피브라우저(UP.Browser)」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회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전세계에 출시할 CDMA휴대폰에 폰컴의 「유피브라우저」를 내장할 수 있게 됐으며 국내 시장에도 한달 이내에 이를 채택한 새로운 휴대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현대전자의 CDMA 휴대폰 사용자들은 폰컴의 유피링크(UP.Link) 서버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한 이동통신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해 무선으로 인터넷 및 인트라넷 데이터를 접속할 수 있다.

또 이번 계약에 따라 현대전자는 1.8GHz의 디지털 폰인 「P2」에 유피브라우저를 채택함으로써 14.4Kbps의 데이터 전송속도로 인터넷 액세스 기능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대전자, 대당전신과 합작사 설립.. 통신장비 시장 진출 “시동”

현대전자(대표 김영환)가 중국 통신장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 대당전신과기주식유한공사(대표 주환)와 자본금 3000만달러 규모의 합작사인 「서안 대당, 현대 이동통신기술개발유한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합의를 교환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국 정부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는 합작사는 현대전자와 대당전신이 40대 60의 비율로 출자하며 향후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관련 제품을 생산해 공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대전자와 대당전신측은 중국 서안지역에 1100평 규모의 공장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양사는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해 CDMA 시스템은 물론이고 무선가입자망(WLL), 개인휴대통신(PCS), IMT2000 관련장비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양사는 이미 구체적인 사업협력을 시작, 최근 중국 2대 CDMA사업자의 하나인 「연합통신」에 대한 입찰에 공동 제안서를 지난달 29일 제출했으며 중국내 WLL사업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대당전신은 자체 개발한 교환기를 생산하는 통신장비업체로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토종기업이라고 현대전자측은 설명했다.

문의/0336-639-8053